북아프리카 공화국

북아프리카 공화국은 X발 사막입니다. 그것도 아주 X발 사막이라구요. 여기는 X발 사막밖에 없어서 도로는 커녕 넘쳐나는 모래밭을 가로지르는 증기선이 도입될 정도였어요! 그래요! 니들이 역사책에서 본 그 증기선! 아무튼 이 X발같은 사막은 생산품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주제에 X발 땅은 또 더럽게 넓어요! 영국 출신의 한 발명가가 발명한 모래에서 영양분을 추출하게 해주는 기계가 없었다면, 북아공은 아주 그냥 씨발 사막이였을 겁니다!

그런 이 X발 사막같은 곳에서 작지만 X발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X발 땅굴벌레들이 서민들의 주식인 모래를 지들이 대신 처먹기 시작한 거에요! 와! 샌즈웜! 그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들(바로 다섯 개의 칼라쉬와 2개의 알라봉이었어요)을 동원해 저 씨발같은 벌레들을 퇴치하려고 애써봤지만, 그들로써는 아무런 흠집조차 내지 못했죠. 땅굴벌레들은 만피가 92인데 1초당 60짜리 공격을 하는데다 독뎀까지 추가로 붙어있으니까요!

바로 그 때, 자신이 와칸다의 추방된 왕족이라고 밝힌 킬몽거라는 사내가 등장해 절망에 빠진 흑인들을 구원했답니다. 놀랍게도 그는 땅굴벌레의 등에 올라탄 채로 벌레를 능숙히 모는 것이 아니겠어요? 용기를 낸 국민들은 샌즈웜의 유일한 약점인 '패턴을 다 견뎌내면 잠에 든다' 를 이용해 하나둘씩 샌즈웜을 길들이기 시작했고, 이윽고 그들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답니다!

이제 북아프리카 공화국의 군대는 가장 든든한 아군을 얻었어요. 그들은 이제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 자기보다 잘먹고 잘사는 중아공의 부르주아들을 모두 단죄하기 위해 무기를 들었답니다. 샌즈웜과 함께라면 그들은 진.짜.겁.나.강.력.합.니.다. 그들의 중아공 원정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무슨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땅굴벌레 - 모든 기병, 차량화 보병, 기계화 보병의 대인 공격력 +10%, 대물 공격력 +5%

샌즈웜 공법 - 민간공장, 군수공장, 조선소, 기반시설, 요새, 해안요새, 레이더 기지, 대공포의 건설 속도 +20%

파피루스 - 안정도 + 10%

아주-멋지고-끝내주는-모래로-도넛-만드는-기계! - 사단 보급 필요량 -80%